장흥군, '2023년산 무산김' 첫 위판 경매 진행

회진면서 2023년산 물김 초매식 개최

2023년산 무산김 첫 위판 경매가 장흥군 회진면에서 진행됐다.

최근 장흥군수협의 주최로 진행된 물김 초매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 어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산 장흥 무산김의 풍작과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8년 김 양식 어업인들과 합심해 무산김 양식을 선포했다.

'착한김'으로 잘 알려진 무산김은 이제 우리 식탁을 지키는 친환경 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장흥군 수협 물김 총 위판고는 21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산김 양식이 뿌리 내리고 갯벌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장흥 앞바다에서 나는 낙지, 주꾸미, 패류 등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친환경 양식을 14년간 지켜온 결과 올해 113어가가 유기수산물 인증을 획득해 35억 원의 직불제를 지원받게 됐다.

장흥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출유통팀을 신설하고 지역 농수축임산물 판촉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슬로우시티 지정으로 힘을 받은 장흥무산김, 표고, 육포 등의 특산품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4년 동안 친환경 무산김 양식의 약속을 지켜온 어업인들에 감사드린다"며, "장흥 무산김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 어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2023년산 무산김 첫 위판 경매가 장흥군 회진면에서 진행됐다. 최근 장흥군수협의 주최로 진행된 물김 초매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 어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 제공

완도군이숍 할인이벤트 진행

완도군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에서 28일까지 전 상품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국내 유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와 연계해 진행한다.

완도군이숍(wandofood.go.kr)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모든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 쿠폰(최대 5만 원 할인)을 회차 별로 1회 씩 발행한다.

이벤트는 1차(10/28~11/6), 2차(11/7~13), 3차(11/14~20), 4차(11/21~28)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벤트 상품은 활 전복과 순살 전복, 전복 가공품뿐만 아니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세트 등 전 품목이 해당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을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만나보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특산품이 더 많이 소비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보성키위' 지리적표시 제111호 등록

보성군은 '보성키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인 보성에서 약 40년 이상의 오랜 재배역사를 간직한 '보성키위'는 키위 품목으로는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했다.

'보성키위'는 알이 크고 과색이 선명하며 당류 함량이 높아 키위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강하며 조직감이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온화한 기후로 키위 생산에 적합하며, 보성군은 연간 4천500t가량의 키위가 생산되는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다.

'보성키위'를 지리적표시로 등록하기 위해 보성군은 지난 2019년도부터 1, 2차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현지 확인과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4년여 만에 지리적표시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보성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제2회 보성키위축제'에서 '보성키위' 지리적표시 등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달식을 가질 계획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등록되면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를 통해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보성군은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11호 보성키위와 더불어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농산물지리적표시 제71호 웅치올벼쌀을 보유하고 있다. /강중수 기자

진도군, 청정진도 으뜸마을 만들기 순항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 중점시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말, 진도 93개 마을 중 자체평가로 선정된 우수마을 5개소에 대해 전라남도 평가단이 방문, 마을공동체 활동 실적 등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고군면 벽파마을은 마을에 위치한 이충무공 전첩비 유적지에 꽃밭을 조성,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의신면 칠전마을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입구 가로수를 정비하고 꽃동산을 조성했다.

다른 여러 마을도 주민 스스로가 환경클린운동에 참여하는 등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마을의 작은 변화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진도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진도군의 9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다.

/이현일 기자

해남,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협약 체결

해남군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땅끝희망이'와 연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남에서 인천까지 릴레이 방문 현장 서명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약기관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 민간단체·유통기업·협력사 8개사 등 총 18개소가 참여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주민들이 배출한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 거점시설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적립한 후 보상하는 사업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합동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올바로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수거거점을 운영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16개소의 수거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땅끝희망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천600세대가 참여해 2천204만9천 포인트 적립과 129톤의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박종옥 기자

고흥, 찾아가는 영화관 호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과역면 잠실이조가비촌에서 개최된 '2022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순천의료원 의료진 20여 명이 행사장으로 나와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도수치료와 영양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오후에는 지난 9월에 촬영한 마을 어르신 장수사진을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역면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영화를 상영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선정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2022)'을 상영했다.

마을주민들은 "이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농번기 등으로 관람시기를 놓쳐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평소 보고 싶은 영화를 관람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